

회덕지역 시인 송남수 연구

정 경 훈*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閑居와 詩酒의 흥취 |
| II. 삶의 자취와 시문학의 흔적 | V. 은거를 통한 회고와 감회 |
| III. 산수 기행에서 오는 감흥 | VI. 결론 |

< 국문 초록 >

松潭 宋柟壽(1537~1626)는 宋希甲(? ~ ?), 琴巖 宋夢寅(1586~1612), 四友堂 宋國澤(1597~1659) 등과 함께 회덕의 대표적 문인으로 알려졌고 특히 송희갑, 송몽인과 함께 회덕 3대 시인으로 불린다. 그리고 윤근수, 이정구, 권필, 김상용, 유근, 정운, 정구, 이호민, 이안눌, 신희 등 조선 중기 최고의 문사들과 교유를 하며 300여 편의 한시를 남긴 인물이다. 송남수의 시는 『箕雅』에 수록될 정도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송시열과 김창협은 송남수의 시적 특징을 조목조목 밝혔고, 특히 김창협은 송남수의 시를 '眞詩'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송시열과 김창협이 지적한 송남수의 시적 경향은 아름다운 산수 기행을 통한 감흥과 관직 생활이후의 한거와 시주의 흥취, 회덕으로의 은거를 통한 회고와 감회였다.

송남수는 계룡산, 관동, 영동, 금강, 형강, 갑천 유람을 하며 감흥을 시로 표현하였고 60세에 관료 생활을 마치고 미련 없이 회덕 고향에 내려와 90세의 나이로 졸할 때까지 琴書와 詩酒를 즐기며 관료생활 때 못했던 흥취를 누렸다.

*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초빙교수 / juilam@hanmail.net

송남수는 졸수의 나이인 90세까지 생존한 인물로 관료 생활을 제외하고 70년 가까이를 회덕에서 생활했다. 그는 은퇴 이후 시주의 감흥을 잠시 즐기기도 했지만 마지막 인생을 송담의 작은 연못으로 옮겨 은거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를 통해 여러 감회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비록 중앙 정계의 현달한 관료,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시인의 명성을 떨친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청도 회덕의 서인 본거지에서 송희갑, 송몽인과 함께 회덕 3대 시인으로 지칭되기에 충분한 성과는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송남수, 회덕, 진시, 산수기행, 한거, 시주, 회고

I. 서론

충청도 회덕지역은 15세기 사육신인 박팽년, 16세기 사화기의 김정, 송인수, 민제인, 송기수, 17세기 북벌과 예송의 시기에 김경여, 송국택, 송시열, 송준길, 송규렬, 김만중, 김익희, 18세기 송상기, 송명흠, 김호연재, 19세기 마지막 산림인 송병선, 송병순 등이 활동했던 곳이다. 회덕 향촌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은진송씨는 최고 향촌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다.

회덕은 宋明誼의 낙향과 宋愉를 거치면서 조선조 내내 은진송씨의 본거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충청도 연산을 기반을 둔 김장생, 김집 등 광산 김씨와 공주에 기반을 둔 이귀, 이시백, 이시방 등 연안 이씨, 노성의 윤선거, 윤증의 파평 윤씨, 대전의 권득기, 권시 등의 안동권씨와 함께 호서 유림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역이다. 이후 회덕은 서인의 분파로 老少로 갈라지자 서인의 노론 근거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계룡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해당되는 회덕은 노론의 중심지가 되었고 계룡산 서쪽에 해당되는 노성지역은 소론의 영수 윤증의 본거지가 위치한 곳으로 소론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필 松潭 宋栲壽(1537~1626)는 회덕을 본거지로 활동했고 쌍

청당을 중수하며 은진송씨의 구심지를 확립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이후 同春堂 宋浚吉(1606~1672)과 尤庵 宋時烈(1607~1689) 등에 의해 회덕이 기호 서인들의 본거지가 되기까지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연구를 통해 기호 서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이전의 은진송씨 인물에 대한 연구는 시대사와 지역사에서 대략적인 지적은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적 성과를 남긴 몇몇 인물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였다.¹⁾

본고에서 주목한 송남수는 윤근수, 이정구, 권필, 김상용, 유근, 정운, 정구, 이호민, 이안눌, 신희 등 조선 중기 최고의 문사들과 교류를 하며 300여 편의 한시를 남긴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시는 『箕雅』에 수록될 정도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김창협은 송남수의 문집 발문에 그의 시인 자질과 시 경향을 조목조목 밝히기 까지 하였다.

송남수는 宋希甲, 琴巖 宋夢寅(1586~1612), 四友堂 宋國澤(1597~1659) 등과 함께 회덕의 대표적 문인으로 알려졌고 특히 송희갑²⁾, 송몽인과 함께 회덕 3대 시인으로 불린다.

송남수, 송몽인, 송국택은 가까운 혈연관계이다. 송남수는 송몽인의 당숙이고 송국택은 송몽인에게 양자로 입적한 아들이다. 송몽인이 31세에 요절하여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없지만 시문은 대단히 뛰어나 대가들과 어깨를 겨룰만하였다. 일찍이 李晬光, 申翊聖 등은 송몽인의 저서인 『琴巖集』 서문과 발문에서 송몽인의 시적 자질과 성과에 큰 찬양을 보낸바 있다.³⁾

1) 김선기, 「송담 송남수(松潭 宋相壽)와 대전의 경관시(景觀詩)」, 『대전문화』 제13호, 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4.

송현강, 「송담 송남수와 대전 향촌사회」, 『대전문화』 제22호, 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13. 송남수의 문학적 성과를 최초로 주목한 김선기는 송남수의 시 가운데 대전지역 경관시에 대해 소개하였다. 송현강은 송남수가 회덕에 안착하며 이후 은진송씨의 확고한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송희갑은 쌍청당 송유의 후예로 측실에게서 난 사람이다. 권필에게 『한서』를 배웠고 권필이 전염병에 걸려 위태로울 때 스승의 병 구환에 진력하였다. 권필은 송희갑의 시재를 높이 평가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國朝人物考』, 趙繼韓 「宋希甲傳」 참조) 그의 시 「春日待人」은 『宋子大全』 卷76 「與南雲卿」 편지 끝에 붙은 별지에 실려 있다. “岸有垂楊山有花 幽齋無處不堪嗟 強扶衰病出門望 之子莫來春日斜.”

송국택은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원손을 탈출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그 뒤 병조참지를 거쳐, 형조참의·공조참의·승지·예조참의 등을 역임하며 현란한 환로를 거쳐 회덕의 靖節書院에 제향된 인물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文思가 넉넉하고 민첩하여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大手筆’과 물에 내려가는 배처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필력의 의미하는 ‘下水船’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문장에도 일가를 이루며⁴⁾ 임병양난의 경험에서 나오는 감상들을 묵묵히 형상화하고 있다.⁵⁾

본고에서는 회덕 3대 시인의 첫 번째 인물인 송남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송남수는 회덕 지역 인물이지만 김창협이 지적한 것처럼 眞詩의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그러므로 송남수의 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조선 중기 한시사에 새로운 자료 보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전체 한시의 진시적 면모를 고구함을 목표로 삼고 기존 연구의 토대 위에 그의 생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⁶⁾

3) 李睟光, 『琴巖集序』, 『琴巖集』, 한국문집총간 속20, p245. “其詩若文, 亦清秀警絕, 類其爲人, 雖少老健之氣, 詞采編編, 已自成家, 大逼中晚唐風調, 可與邢居實, 蘇舜欽論伯仲也. 其遊太學, 聲名益大振, 儕類皆推讓, 莫敢望焉. 謂可立拾青紫, 輝赫當世, 而年三十一竟卒. 夫天以是才與是人, 若將有爲, 而遽奪以去, 嗟乎天乎? 慟也惜也. 竊惟其平日所爲悼康子和詩, 一字一句, 無非摸寫自己事如畫, 所謂詩識者非耶?”

申翊聖, 『琴巖集跋』, 『琴巖集』, 한국문집총간 속20, p266. “爲省觀途維揚, 伯游示余一卷詩, 卽子時所稱宋子之詩也. 余忻於果願, 受而讀之, 目眩而心掉, 琅然瑩然, 徐而嚼之, 旨乎其味, 釋乎其音, 神與才傳, 天機自在, 可謂泥而不滓者也.”

4) 黃以章, 『四友堂集』, 卷4, 『賦』, <識>, 한국문집총간 속27, p326. “先生爲學, 惟沙溪老先生塗轍是視, 專用心於內而不事著述, 至於詞章則尤不屑也. 然其英才天得, 自少文思聰敏, 不學而能, 故在翰苑, 嘗以大手筆下水船見稱.”

5) 정경훈, 「사우당 송국택의 시문학과 문학세계」, 『사우당 송국택의 선비적 삶과 우국정신』, 대전광역시, 2018.

6) 『松潭集』은 은진송씨 송담공파 문중에서 1997년 국역으로 간행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바로 잡아 재번역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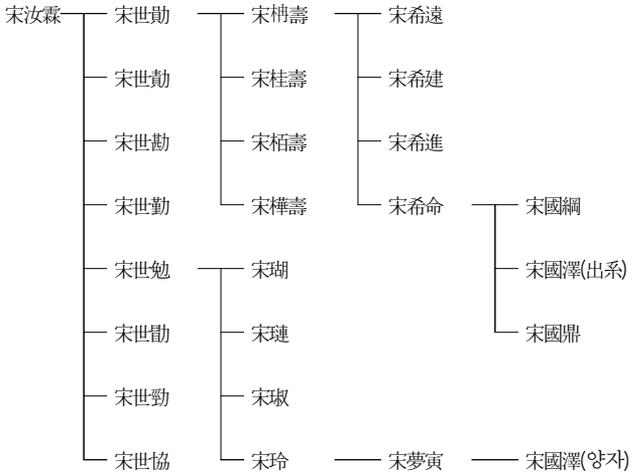
II. 삶의 자취와 시문학의 흔적

송남수(1537~1626)는 본관이 은진으로 1537년(중종 32) 10월 7일 회덕에서 안악군수인 宋世勛과 진사 鄭鸞年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靈老이고 호는 松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간혹 賞心軒, 吾道山人, 百拙老人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회덕에 恩津宋氏가 처음 정착을 한 시기와 이후 유력한 지배 세력을 형성한 내력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은진송씨의 시조 宋大源이 고려 때 判院事를 지내고 나라에 공을 세워 恩津君에 봉해지면서 충청도 논산 지역에 세거지를 삼게 되었다. 송대원의 증손자인 宋明誼가 1362년(공민왕 11) 문과에 급제하고 司憲府執端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처가가 있던 회덕 황씨촌에 자리 잡았다. 송명에게는 한명의 아들이 있는데 宋克己이고, 송극기의 아들은 宋愉로 그가 바로 雙淸堂이다. 송유는 副司正으로 있다가 태종이 집권하면서 神德王后 康氏를 太祖廟에 附해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회덕 백달촌으로 낙향하였고 이곳에 쌍청당을 지어 평생을 보냈다. 송유는 회덕에 살던 醉琴軒 朴彭年과 교유를 하였고 옥천 지방의 蘭溪 朴堧과도 교유하면서 이 지역의 유력한 향촌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송유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繼祀와 繼中이다. 계사는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을 제거 하는데 공을 세워 정난 원종공신 3등에 피봉되었지만 그의 부인은 김종서의 아우 金宗興의 딸이다. 계중은 안동권씨 權遇의 딸과 결혼했는데, 권우는 陽村 權近의 아우이다. 계사의 두 아들인 遙年과 順年은 아버지 송계사와 함께 정난 원종공신 3등에 피봉되었다. 순년은 안동김씨 직제학 김맹헌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후 은진송씨들은 대대로 통혼을 통해 명문거족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은진송씨는 자기가문의 개발에도 성공적이었고 宋浚吉, 宋時烈 이전 文科급제자가 20명, 司馬試 합격자가 52명이 배출되었다.⁸⁾

7) 金尙憲, 『淸陰集』, 권36, 「雙淸堂宋公墓表陰記」 참조.

이와 같이 회덕이 은진송씨의 세거지로 확정되었고 송남수는 1626년(인조 4) 90세의 나이로 졸할 때까지 관직 시기를 제외하고는 회덕지역에서 활동하며 회덕 3대 시인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문학적 성과를 남겼다. 그의 앞뒤 가족 계통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송남수의 일생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그가 직접 찬한 「自誌文」과 『松潭集』 소재 「年譜」申欽이 찬한 「宋通川墓碣銘」, 송시열의 「雙淸堂題淸錄序」, 송상琦의 「松潭府君墓碣追記」 등이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졸수의 삶을 이은 송남수의 생애를 재구성하면 잠약기, 사환기, 만년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잠약기는 그가 본격적인 벼슬길로 나가기 이전인 41세(1577)까지이다. 이 시기는 송남수가 회덕에서 출생하며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 시기이다. 송남수는 16세(1552)에 부친을 여의었고 3년 뒤 첫 번째 부인인 전의이씨 李翰의 딸과 혼인하였지만 그해 부인상을 당하

8) 최근목, 「17세기 大田地方의 士林 基盤」, 『道山學報』4, 도산학술연구원, 1995. 참조

는 불운을 당하였다. 2년 뒤 21세(1557)에 진주류씨 柳亨弼의 딸과 혼인하게 된다. 26세(1562)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부친 송세훈을 잃은 지 10년 뒤의 일이었다. 3년 동안 모친의 시묘살이를 끝마치자 장남 宋希遠이 태어나는데, 그의 나이 29세(1565) 때이다. 이후 36세(1572)에 차남 宋希建, 44세(1580) 삼남 宋希進 등이 차례로 출생하였다.

송남수는 27세(1563)에 송유가 회덕으로 낙향한 후 1432년(세종14)에 건립하여 거처하던 별당인 雙淸堂과 節友堂을 오랜 세월 중수하면서 은진송씨의 화목을 도모하였고 이곳을 종친의 구심지역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윤근수, 권필 등이 송남수에게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⁹⁾ 이후 40세(1576)에 계룡산을 유람하며 몇몇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둘째, 사환기는 42세(1578년)부터 61세(1597년) 본격적인 벼슬 생활 시기이다. 늦은 나이 42세에 벼슬길에 올라 司圃署別提가 되었고, 43세(1579) 義盈庫直長, 46세(1582) 尙衣院主簿, 49세(1585) 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다. 50세(1586) 定山縣監에 부임했고 이때 아우 宋桂壽의 상을 당하였다. 57세(1593) 宗簿寺主簿와 尙衣院判官, 平市署丞, 戶曹正郎을 거쳐 通川郡守가 되어 관동 지역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관동의 여러 승경지에 대한 작품을 남겼다. 60세(1596)에 체직이 되어 서울 상심헌에 거처하였다가 8월 잠시 회덕으로 낙향하였다. 이듬해 林川郡守가 되었지만 군수로서 왜적의 침입 때에 도망쳤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파직되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 억울함을 살펴서 다행히 무사하게 되었다. 그는 사면된 후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고향 회덕에 돌아와서 살았다.

셋째, 만년기는 62세(1598년)부터 졸할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折衝副護軍 등 몇 차례 승진과 80세에 嘉善大夫 등 품계를 받았지만 졸할 때까지 서울과 회덕을 오가며 특별한 정치적 활동은 하지 않았다. 반면, 송남수는 만년기에 명승지 유람과 詩作에 몰두하며 풍부한 문학작품을 생산에 주력하였다. 78세(1614) 서울 도화동에서 耆舊會에 참석하며 원로로써 사명을 다했고, 그해 가을, 죽손인 宋爾昌과 계룡산을 유람하였는데, 40세 이

9) 尹根壽, 『月汀集』, 卷2, 「松峯還鄉詩以贈行, 宋栢壽」, 한국문집총간 47, p192. 權輶, 『石洲集』, 卷3, 「將歸懷德農野, 求詩甚急, 次韻贈之」, 한국문집총간 75, p28.

후 38년 만의 유람이었다. 그리고 80세(1616) 금강을 유람하며 정력적으로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오히려 만년기에 지속적인 유람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기면서 시인의 명성을 쌓았다. 81세(1617) 송이창과 湄灑亭에 동행하며 시작을 하였고, 7월 형강을 유람하며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86세(1622) 회덕 인근 갑천 유람과 『海東山川錄』을 편찬하였다.

송남수는 교유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權鞞은 회덕으로 찾아와 송남수와 수창시를 남기기도 하였고, 李好閔은 굴파원에서 송남수를 만나는 등 당대 최고 문사들과 교유를 통해 자신의 詩才을 인정받았다. 그는 87세(1623)에 옛 선인의 언행을 초록하여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수신서인 『檢身要訣』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90세(1626)에 직접 인생을 회고하며 誌文을 남기고 즐하였다.

송남수의 문집인 『송담집』에는 文名을 엿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산재해 있다. 『송담집』은 손자 宋國士와 증손 宋奎昌, 宋奎濂, 종현손 宋相拊 등이 수집·편차하여 송시열이 지은 서문과 김창협이 쓴 발문과 함께 1686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¹⁰⁾

『송담집』에 수록된 시는 모두 319수로 시체 별로 분류를 하면 오언절구(19), 칠언절구(99), 오언율시(82)와 칠언율시(114), 오언배율(2), 칠언배율(1), 오언고시(2) 등 이다. 김창협이 쓴 발문에는 모두 400여 수가 넘는다고 하지만 현존 문집에는 위와 같이 300여 수가 남아있다. 그의 작품은 詩酒와 琴書로 소일하며 담박한 삶을 표현한 것과 산수와 승경지를 통해 기행의 사적과 세월의 무상함, 꿈속 비경 등을 소재 등이 많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송담집』의 서문에서 송남수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한다.

젊었을 때 벼슬살이에 종사하였으나 관리 일로 골몰하지 않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훌쩍 홀로 찾아갔으며, 모든 사물에 감촉되거나 좋

10) 1968년에 후손 송석림이 원집에서 빠진 한글 단가(1), 제발(1), 묘표(2)를 보충하고 부록으로 연보, 가장, 묘지, 묘갈명, 습유, 발 등을 추가하여 대전에서 4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

은 기회를 만나면 반드시 시를 읊조렸고, 중년 이후에 세상에 진출하려는 뜻이 이미 싫어져서는 유업을 수리하는 한편, 조상을 받들어 같은 일가들을 단합시키며, 제사 때에 서로 모여 친목을 도모하여 그 풍류가 매우 돈독하였으며, 좋은 명절이나 계절에는 술을 마련하고 벗을 불러서 한껏 즐겼는데, 그 말과 즐거움이 시 아닌 것이 없었다.¹¹⁾

송시열은 송남수의 시적 특징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곧 송남수의 일대기를 따라 분류하였는데, 출사 이전에 대한 언급은 없고 40대 이후의 작품에만 언급하였다. 송남수의 문집에 수록된 시들은 40세 이후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송남수의 시를 그의 일대기 순서대로 분류하였다. 곧, 40세 이후부터 90세까지 약 50년 동안의 시작을 시간 순서대로 네 가지로 보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젊었을 때 관직에 종사하며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 기행하며 쓴 시
- ② 모든 사물에 감촉되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서 쓴 시
- ③ 중년이후 출사의 뜻을 접고 조상의 유업과 친족의 도모를 위해 풍류를 읊은 시
- ④ 좋은 명절이나 계절에는 술을 마련하고 벗을 불러서 한껏 즐기며 지은 시

김창협은 발문에서 앞서 언급한 송시열의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반면 앞서 송시열이 지적한 네 가지 특징들을 순서만 달리 하며 언급하다. 그리고 김창협은 송남수의 시에 대해 진시(眞詩)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우제의 서문에 이르기를, “젊어서부터 사방 각처를 돌며 수령을 지냈는데, 가는 고장마다 그곳의 아름다운 산수를 유람하길 좋아하였다. 중년에는 지쳐 고향

11) 宋時烈 『宋子大全』, 「松潭宋公文集序」, 한국문집총간 112, p580. “少時遊宦四方, 亦不以吏事自汨, 聞有佳山水, 輒飄然獨往. 凡觸物遇境, 必發於吟詠. 中年以後, 弧矢之志既倦, 則修葺舊業, 奉先收族, 烝嘗睦姻, 風流篤厚, 佳辰令節, 治酌命傭, 極其清歡. 其談讌嬉怡, 無非詩者.”

으로 돌아와 날마다 쌍청당을 쓸고 닦으며 소박하고 맑은 마음으로 마치 신선처럼 앉아 있곤 하였다. 8, 90세를 사는 동안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공이 진정한 시인이 된 까닭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물을 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회를 시로 읊조렸고, 좋은 절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 술자리를 마련하고 벼를 불러 담소를 나누며 즐긴 것이 모두 시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공이 진정한 시를 짓게 된 까닭이다.¹²⁾

김창협은 송시열의 「서문」에서 지적한 네 가지 특징을 대체적으로 모두 긍정하였다. 김창협은 송남수의 관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산수기행시를 지적하였고 은퇴 이후 고향으로 낙향하여 조상의 유지에서 신선과 같은 삶을 살며 진실한 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경물을 통해 진솔한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고 친구를 만나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를 시로 나타냈으니 송남수의 시는 진실한, 진솔한 시(眞詩)임을 밝히고 있다.

Ⅲ. 산수 기행에서 오는 감흥

선비의 산수 기행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조선조 문인들에게 산수 기행은 단순한 樂을 주는 여행 경험담이 아니라 진실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과 자연을 돌아보며 생기는 仁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樂山樂水の 공자가 말한 격언이나 맹자의 浩然之氣 주장은 큰 마음을 접하고자 하는 갈망의 모습이기도 하다.

송남수는 관료 생활 중에는 임지의 명승지를 줄곧 여행하며 시를 남겼고 퇴덕에 돌아와서는 인근 명승지뿐만 아니라 소소한 산수의 모습을 가지고 신선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 송남수의 주요 유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金昌協 『農巖集』, <松潭集跋>, 한국문집총간162, p199. "序稱公自少游宦四方, 輒喜游佳山水, 中歲倦而歸鄉, 日灑掃雙清堂, 蕭然青坐若神仙. 蓋生歲八九十, 未嘗有皺眉之事, 此公之爲眞詩人也. 遇境觸物, 必發於吟詠, 佳辰美景, 治酌命儔, 談讌麀台, 無非詩者. 此公之所以爲眞詩也."

- ▶40세(1576) 계룡산 유람
- ▶57세(1593) 통천군수 재직 시 관동지역 유람.
- ▶78세(1614) 청좌와 송이창과 계룡산을 유람
- ▶79세(1615) 8월 영동현 동대 등을 유람
- ▶80세(1616) 금강 유람
- ▶81세(1617) 7월 형강 유람.
- ▶86세(1622) 8월 갑천 유람.

『송담집』에 수록한 한시 가운데 그의 나이 40세 이전에 며칠씩 시간을 두고 규모 있는 유람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한수 기행은 크게 계룡산, 관동지역, 영동, 금강, 형강, 갑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관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충청도나 회덕 인근 지역이다. 그리고 40세 이후 비교적 늦은 시기에 유람을 통한 산수 기행시를 남긴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인 유람을 통해 남긴 작품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소규모 기행을 통해 얻어진 한시라 볼 수 있다.

우선 송남수가 57세에 관동지역으로 부임하면서 지은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송남수에게 완숙한 한시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기이다. 다음 작품은 강원도 통천군수로 재직할 시기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 총석리에 있는 총석을 소재로 지은 「叢石錄呈殷把揔老爺」이다.

勝境逢仙侶	경치 좋은 곳에서 신선 짝을 만나
秋花映酒觴	가을꽃 술잔에 비치네.
莫愁歸路黑	귀로가 어둡다 근심 말라.
天際月流光 ¹³⁾	하늘 끝, 달빛이 흐르고 있으니.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총석은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관동의 명승지이다. 송남수는 총석에 올라 은씨 성을 가진 종4품 무관에게 총석의 아름다

13) 宋栢壽, 『松潭集』, 卷1, (한국문집총간 속4), p449.

은 모습을 색조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승경의 풍광과 가을꽃에 비친 술잔의 대비를 통해 시흥을 고취시키고 어두운 귀로 길과 담담한 달 빛을 통해 차분한 시감을 느끼게 한다.

다음 작품은 「三日浦」이다. 강원도 승경지인 삼일포에서 지은 작품으로 송남수의 시재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다.

二十年前此地遊	이십 년 전 이곳을 왔으니
丹書巖下繫孤舟	단서암 아래 외로운 배를 묶었다네.
只今白首重來訪	지금 백발 되어 다시 찾아오매
依舊風光豁病眸 ¹⁴⁾	의구한 풍광이 병든 눈앞에 펼쳐지네.

丹書巖은 현재 강원도 삼일포의 와우도 서쪽에 있는 바위로 붉은 글자가 새겨져 있고 옛날 신선들이 와서 놀다가 바위에 새겨놓은 글자가 붉게 보인다 하여 명명했다.¹⁵⁾

이십 년에 찾은 강원도 삼일포를 백발 된 나이에 다시 찾은 송남수는 예전 풍광을 기억해 본다. 지금은 병든 몸이지만 이십 년 전에는 임금의 명을 받아 홀몸으로 이곳에 왔으리라. 그 때의 깊고 큰 골짜기가 맑고 그윽하며, 소나무와 돌이 기괴한 삼일포에 관리가 되어 왔지만 삼일포의 풍광은 관직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하였다. 이와 같이 관동 지역 유람은 다음 작품인 「秘仙臺, 看日出」에도 보인다.

清曉鳴沙信馬行	새벽 맑은 명사길을 말에 맡겨 가는데
仙臺高聳海雲平	비선대는 평평한 구름바다에 높게 솟아있다.
登臨直待扶桑旭	높은 곳 올라 동해 일출 기다려
萬里晴光一様明 ¹⁶⁾	멀리 퍼진 맑은 빛에 모든 형상이 확실하구나.

14) 宋栢壽, 『松潭集』, 卷1, (한국문집총간 속4), p450.

15) 『조선향토대백과』, 2008, 평화문제연구소,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참조

16) 宋栢壽, 『松潭集』, 卷1, (한국문집총간 속4), p450.

비선대에서 일출을 보며 쓴 작품이다. 비선대는 강원도 속초의 동명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내려와 목욕하면서 신비한 곡조를 들으며 즐기는 곳이라 하여 비선대라고 하였다.

새벽 비선대의 모습과 비선대에서 바라본 구름바다 위 동해의 일출은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 모습을 송남수는 모든 형상이 명료하다는 짧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한참 이후에 지은 「記楓嶽舊遊」 두 수이다.

(1)

千峯競拔海雲開

亂壑爭流吼萬雷

碧檜重重人不到

香爐巢鶴獨歸來

일천 봉우리는 빼어남을 다투고 바다 구름 활짝 개여
어지러운 골짜기에 쏟아지는 물은 일만 우레가 소
리치듯 하다.

푸른 전나무가 중첩으로 서 있어 사람을 오지 못하
게 하고

오직 향로봉에 깃들인 학들만 오는구나.

(2)

萬二千峯百八庵

珠潭銀壁眩東南

吟筇迴倚風松下

目奪神忙興不堪¹⁷⁾

일만 이천봉과 백팔 암자

구슬 같은 연못과 은 같은 하얀 절벽에 눈 어지러워
동쪽남쪽도 못 가리네.

시인의 지팡이로 바람 이는 소나무에 멀리 의지해

눈 빼앗기고 정신 어지럽지만 그 흥을 참을 길 없다.

송남수가 금강산을 소재로 한 시들은 금강산에 있는 암자와 계곡을 단편적인 소재로 지은 것들이 많다. 위의 시는 과거 금강산을 기행하면서 남기지 못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이다. 첫째수를 보면, 금강산의 웅장한 모습을 亂壑으로 서술하였고 물줄기의 굉성한 소리를 萬雷라 표현하였다. 금강산 산행의 어려움과 울창한 산림의 모습을 푸른 전나무의 무성

17) 宋栲壽, 『松潭集』, 卷1, (한국문집총간 속4), p460.

함으로 표현하였고 금강산 정상은 오직 고고한 학만 도달할 수 있을 정도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수에도 금강산의 장관을 기술하였는데, 금강산에 산재한 연못과 절벽은 너무 아름다워 그 위치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인 송남수는 지팡이를 힘들게 의지하며 모르지만 금강산 절경에 시선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이고 그 흥취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솔직히 기술하고 있다.

송남수는 고향 회덕 주변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 정취를 남긴 바 있다. 그가 40세에 계룡산을 유람하고 38년 후 78세였던 1614년 가을에 송이창과 계룡산을 유람하였다. 송남수는 첫 번째 계룡산 유람에서 느끼지 못한 정취를 다음 「重遊鷄龍山」 두 편의 시로 남기고 있다.

(1)

一杖行尋舊洞天
白雲紅樹尚依然
吟情浩蕩風兼月
樽酒淋漓聖且賢
簪笏已拋身上累
水雲今作飲中叢
丹丘玄圃遊蹤遍
三洞真人導我先

하나의 지팡이로 찾아가 보는 옛 신선의 골짜기
흰 구름과 붉은 나무는 아직도 의연하구나.
시를 읊는 정취 호탕한데 바람과 달이 곁하고
술통의 술 흥건하며 맑은 술 또한 넉넉하구나.
잡과 홀은 이미 내 던지고 몸을 거둬 올르니
물과 구름 바로 일며 마시는 중에 신선이 되네.
단구와 현포에 두루 미쳐 즐기면서 뒤 따르니
삼동의 진인께서 나를 인도하여 앞서 가시네.

(2)

天邊螺黛亂山稠
山外青羅錦水流
澗月溪風挑晚興
白雲紅樹媚清秋
盈樽美酒澆詩肺
挿帽黃花愧白頭
向夕嵐光看更好
不妨携笛月中遊¹⁸⁾

하늘 끝 검푸른 고동처럼 산은 어지럽고
산 밖 푸르게 늘어선 아름다운 강물 흐른다.
골짜기 달과 시내의 바람이 늦도록 흥을 돋우고
흰 구름과 붉은 나무는 맑은 가을에 아름답구나.
술통 가득 맛있는 술로 시 짓는 마음에 물을 대고
모자에 꽂은 노란 국화는 흰 머리 부끄러워하네.
저녁에 바라보는 남기 빛은 다시 봐도 아름답고
거리낌 없이 피리 들고서 달빛 속으로 유람하네.

첫 번째 시에 나타난 시정은 계룡산과 신선이 사는 삼동의 오묘한 결합이 드러나고 있다. 첫 계룡산 유람 이후 노구의 몸이 된 78세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올라온 계룡산의 모습을 통해 시인은 젊은 날 호탕한 기상을 다시 생각해 본다. 흥진한 술통에 담긴 시인의 호방한 기상은 흰 구름과 붉은 나무에 둘러쌓은 계룡산의 기상과 적절히 어울리고 있다.

두 번째 시에 나타난 시인의 마음은 다양한 색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예전과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계룡산과 달빛, 희끗한 머리와 모자에 꽂은 노란 국화 등 색조 대비를 통해 산수 기행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 살펴 볼 작품은 송남수의 기거했던 회덕 인근에 흐르던 형강 상류에서 유람하며 지은 「荊江上流獵魚」이다.

阿誰邀我到滄洲	누군가 나를 맞이하여 검푸른 물가에 이르렀나?
秘境風烟豁病眸	비경과 풍연을 무릎 쓰고 깨닫는구나.
湖胸子橋明活畫	호수 배와 들녘 다리가 살아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고
水風松靄當清秋	물 위 바람과 소나무 아지랑이 맑은 가을을 마주하네.
盈盤錦鯉跳銀尺	소반 가득한 아름다운 붕어는 은빛이 한자나 뛰고
潑綠流霞瀉玉舟	초록빛 솟아 번지는 노을은 아름다운 배에 쏟아지네.
歸去莫愁山路黑	돌아가는 산속 길이 보이지 않다 근심하지 말게
天衢雲散桂光流 ¹⁹⁾	하늘을 가는 구름이 흩어져서 달빛이 번져 퍼질 것이네.

형강은 현재 청주시 현도면과 미호천과 합류하는 곳에 흐르는 물줄기로 세종시의 금강수계를 말한다. 작품 속에 나타난 의경은 들녘의 풍요로움과 잔잔한 형강 모습을 적적히 묘사하고 있으며 이곳에 배를 타고 유람하는 송남수 자신의 모습은 주자의 무이구곡의 시상 전개와 흡사하다. 제목은 「형상 상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荊江上流獵魚)」인데 낚시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형강에 배를 타며 지나가면서 비경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갈 귀거래의 최종 모거적지를 향하는 모습을 적

18) 宋栲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86.

19) 宋栲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87.

절히 유추할 수 있도록 마지막 구에서 구림이 흠어져 달빛이 환하게 퍼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또 형강의 풍연 비경은 주자가 쓴 「武夷九曲」에서 형상한 風煙欲開와 대비되도록 서술하고 있다.

IV. 閑居와 詩酒의 흥취

송남수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회덕으로 낙향하였다. 비로소 바쁜 관직 생활에서 벗어나 한가한 삶과 시주의 흥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거는 마냥 집에서 무료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그것이 자의이던 타의이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바쁜 일상을 잊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하나의 삶의 종류이다. 그 속에서 시주는 바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훌륭한 소재이다.

다음에 소개할 「述懷」는 지난날을 기억하며 시주와 琴書의 흥취를 추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

踈慵無術佐明時
三黜名場分所宜
四壁圖書存至樂
一庭花竹稱幽期
佳山好水心長往
踏石攀林脚不衰
莫道巖居生事薄
滿園芋栗足忘飢

거칠고 게을러 재주도 없이 좋은 세상 다스리다
벼슬길 세 번 내침을 당했지만 분수에 마땅하구나.
네 벽면의 책과 서류로 과분한 즐거움이 있으며
모든 뜰의 꽃과 대나무는 그윽한 기약에 걸맞네.
아름다운 산과 좋은 강물로 마음은 항상 향하고
돌을 밟고 수풀에 매달려도 다리는 쇠하지 않네.
언덕에 살면 사는 일이 척박하다 말하지 말라.
뜰에 가득 토란과 밤으로 굶주림 잊기 넉넉하오.

(2)

行年九十渾如夢
往事亡羊不掛心
繞屋溪山明活畫

살아 온 나이 구십 년이 혼탁한 꿈만 같으니
양을 잃은 지나간 일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산과 시내가 집을 감싸니 그림처럼 나타나고

擁簷松竹產溍陰
 慵來未奏齊門瑟
 老去長携靖節琴
 欹枕偶成湖海夢
 水雲深處伴沙禽²⁰⁾

솔과 대나무 처마를 가리니 맑은 그늘 생긴다.
 마음 내키지 않게 되니 비파를 연주하지 않고
 늙어 가면서도 항상 도잠의 거문고를 든다.
 베개에 기대 짝을 이루어 호수와 바다 꿈꾸고
 물과 구름 깊은 곳에 물가의 새들과 벗한다.

지난 일을 기억하며 쓴 『술회』의 첫 번째 수를 보면, 자신의 용렬한 재주에도 불과하고 좋은 세상을 만났고 세 번이나 좌천을 당한 벼슬길은 단지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분수에 마땅하다고 했지만 평화스런 세상을 만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가를 만끽하며 가산호수를 노닐고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대부의 한거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아름다운 강산과 그곳을 다니는 자신은 환로 생활에서 경험치 못한 척박한 생활이지만 뜰에 가득한 토란과 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넉넉하고 훌륭한 양식이다. 이와 같은 삶은 歸去來를 외치며 전원생활로 돌아간 도연명에 비교하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 수를 보면, 90세를 살아오면서 회노애락과 흥망성쇠 등 모든 경험을 겪은 작자는 인생의 정답을 多岐亡羊의 고사에서 찾는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화려한 환로인지, 뛰어난 문사의 명성을 얻는 것인지, 심오한 학문의 길을 탐구하는지는 다기망양처럼 그 결과를 가늠하기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깊은 문제이다. 다만, 작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실은 외직을 전전하던 고달픈 관직 생활이 아닌 소나무와 대나무, 비파와 거문고를 가까이 하며 호수와 바다를 꿈꾸는 한가로운 지금의 모습이다. 그리고 물, 구름, 새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다음의 「閑居漫興」 작품도 한거와 흥취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土牀蒲薦臥袁安
 雪積千林正釀寒

흙 침상의 부들자리에 원안처럼 누우니
 많은 숲에 눈이 쌓여 때마침 추위를 만드네.

20) 宋栢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90.

世念已隨雲共散
宦情偏與歲俱關
一庭春信梅千朵
三逕清風竹萬竿
晴旭滿窓人不到
攬爐閑對篆烟殘

세상 생각을 너무 따르니 구름처럼 흩어지고
벼슬 욕심 더불어 치우쳐 세월만 모두 저무네.
은 뜰 봄소식에 매화나무 무성히 맺혀있고
세 가지 좁은 길 맑은 바람에 대나무 그루가 많구나.
맑은 아침 해 창에 가득해도 이르는 사람 없어
화로 안고 한가히 대하니 향로 연기만 남는구나.

원안은 중국 후한사람으로 눈이 내리면 쓸지 앓고 문을 닫고 방에서 누웠다고 한다. 곧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절개를 지킨다는 고사이다. 송남수는 세상의 온갖 생각과 벼슬에 관한 욕심 때문에 세월만 보냈음을 시인하고 낙향한 고향 회덕의 거처에서 맑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가롭게 지내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회덕 인근에 위치한 읍내에 세운 읍호정을 오르면서 쓴 「寄題宋福汝挹灑亭」이다.

(1)

物外樓成俗事稀
青衫換了綠蘿衣
壑雲松靄重重掩
列岫長川面面圍
萬古名亭還作主
一區清景足忘機
林僧野老來相問
閑把村醪上翠微

세상 물정 밖에 갖추어 살게 되니 속된 일은 드물고
푸른 적삼 마침내 바꾸니 은자의 옷 겹고 아름답네.
골짜기 구름과 소나무 운무가 겹겹이 겹쳐 가리고
늘어선 산봉우리와 긴 내가 옆과 곁을 에워쌌구나.
만고의 이름난 정자에 주인이 돌아와 이르니
한 모퉁이 맑은 경치가 속세의 일 잊기에 넉넉하네.
숲속의 스님과 들판의 노인이 서로 와서 방문하고
시골의 막걸리 한가히 잡고서 산 중턱에 오르리라.

(2)

幽人初罷南柯夢
旋向名區縛數椽
檻外長波連錦水
天邊列岫擁雒城
盈筐山蕨林僧薦
薰甲春杯野老呈

그윽한 사람이 비로소 그만두는 남쪽 가지의 꿈
이름난 곳 빠르게 나아가 몇 기둥을 엮었구나.
난간 밖의 긴 물결은 금강의 물과 잇닿아 있고
하늘에 늘어선 산봉우리들 유성을 호위하네.
광주리 가득한 산 고사리는 숲의 스님이 드리고
가득 따른 봄날의 술잔은 시골의 노인이 드리네.

回首風塵爭奪地 머리 돌리니 바람과 티끌을 다두고 빼앗는 처지
不知誰辱又誰榮²¹⁾ 알지 못하겠구나, 누가 욕되고 또 누가 영화로운지를.

갑천 인근에 위치한 읍호정은 송준길의 부친인 송이창이 현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구만이에 세운 정자이다. 송이창이 이곳에서 선비들과 교류하며 후학들에게 강론하였고, 아들 송준길이 물려받아 이곳을 중수하였다. 81세의 송남수는 송이창 만든 읍호정에 시를 붙이며 읍호정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수를 보면, 물욕에서 벗어나 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송남수 자신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읍호정이 있는 곳이 은자의 거처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절구에서 숲속의 스님(林僧)과 들판의 노인(野老)의 등장이 이채롭다. 속세를 떠나 둔세를 택한 스님이 잠깐 속세로 나와 들판의 노인과 읍호정을 방문함은 시인이 잠시 속세로 나와 인근 주민들과 읍호정에 왔음을 말하고 있고 투박한 시골 막걸리 한가롭게 읍호정의 뒷산인 당산 중턱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 한때 환로를 전전하다 고향 회덕으로 낙향한 송남수는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곧 南柯一夢을 꿈꾼 지난 생활을 회상하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갑천, 금강의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지금은 대덕연구단지로 변화했지만 우성이산에 펼쳐진 얇은 산은 금강을 호위하듯이 펼쳐져 있고 읍호정 주변 비래산에 있는 암자 스님은 고사리를 채취하고 들판의 시골 노인은 막걸리 한잔으로 고달픈 노동을 잊고자 한다. 마지막 절구에서 바람과 티끌의 대비로 속세의 거센 세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진정한 영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본다.

다음은 작품은 「感懷」이다. 그의 만년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人生百歲間 인간 생활 백년을 사는 동안에
倏若風中燭 빨리 내닫기는 바람 속 촛불과 같구나.
萬事不關心 온갖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山樽聊自酌²²⁾ 산의 술잔 부족하나마 즐겨 마신다오.

21) 宋栢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87.

백 년도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송남수의 만년, 90세 가까이 쓴 작품으로 보여진다. 그가 90년을 사는 동안 인생의 속도는 바람 속 초불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에 한가롭게 있으니 세상만사를 접어두고 산 속에 은거 하며 몇 잔 술로 옛날과 지금의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한거와 시주의 흥취를 마음껏 표현한 「漫題」이다. 시 제목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껏 자신의 흥취를 나타낸 시이다.

多年猿鳥日相親	여러 해를 원숭이 새들과 서로 날마다 친해지니
丘壑閑情老轉新	언덕과 골짜기 한가한 정 늙어도 새롭게 깨닫네.
塵土幾傷迷路客	티끌과 흙에서 얼마나 근심했나 길 잃은 나그네
水雲今作賞心人	물과 구름 바로 일어나니 몸은 즐겁고 기쁘구나.
丹楓景落杯中物	붉은 단풍나무 그림자 쓸쓸히 잔속을 헤아리고
明月光侵畫裡身	명월의 풍경이 차츰 그림 안에 나를 받아들이네.
醉臥石床扶不起	돌 평상에 취해 누워 부축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滿山風露濕綸巾 ²³⁾	온 산의 생량한 이슬과 바람에 윤건이 젖는구나.

고향 회덕으로 돌아온 지 여러 해, 산속에서 오랫동안 시주를 하다 보니 원숭이 새들처럼 산 속 짐승등과 친한 사이가 될 정도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산 속 풍경은 항상 새롭게 느껴진다. 새롭게 느껴지는 자연 속, 전원생활에서 바라 본 속세의 관직 생활은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어 떠도는 신세임을 짐작하여 말하고 있다. 술잔에 비치는 단풍 그림자와 밤에 밝게 떠오르는 밝은 달은 점점 작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작자는 평평한 돌 위에서 새벽이슬에 윤건이 젖을 정도로 흠뻑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이 흥취를 맛보며 일탈적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탈의 모습은 오직 산 속의 짐승과 물, 구름뿐이니 이 사실을 시로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은 흥취의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22) 宋栢壽, 『松潭集』, 卷1, (한국문집총간 속4), p448.

23) 宋栢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86.

V. 은거를 통한 회고와 감회

관직 생활을 마치고 회덕으로 낙향한 송남수는 이곳에서 은거하며 지난 날을 회고한다. 다음 작품은 관직 생활에서 느낀 영욕의 시간을 회고하고 고향으로의 은거에 대한 솔직한 감회를 시간을 두면서 쓴 「滄丘懷古」이다.

靑山轟轟水深深	푸른 산은 높이 우뚝 솟고 물은 깊고 깊는데
往迹淒涼何處尋	처량하게 지나간 자취 어느 곳에서 찾아보나.
古塔閑雲朝復暮	옛 탑의 한가한 구름 아침과 저녁 되풀이하고
窪樽明月古猶今	바위 술동이의 밝은 달빛 옛과 지금이 같구나.
可憐濁世醫民手	가연다, 혼탁한 세상 백성 보살피던 솜씨와
忍見當年絕命吟	그 해의 절명을 읊은 시를 차마 보지 못하겠네.
宇宙空留孤憤在	우주는 부질없이 외로운 분노 남겨두어
長教志士淚盈襟 ²⁴⁾	오래도록 지사로 하여금 눈물로 옷깃 적시게 하네.

창구는 현재 대전시 동구 내탑동 탑산리를 가리킨다. 이곳은 산봉우리가 높이 솟아 깊은 산 속으로 속세와 차단된 곳으로 예전에는 古塔이 있었던 곳이다. 송남수는 높이 높은 푸른 산과 깊은 물이 있는 창구에서 은거하다 보니 지난 처량했던 과거의 자취를 회고 할 수 없다 주장한다. 이곳에 있는 고탑과 바위 위에서 마셨던 술은 예전과 지금이나 같지만 자신이 관직 생활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과 그것을 소재로 쓴 시는 지금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옛 일을 생각해 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여 자신이 우주 속에 아직 있다는 것이 분개할 정도로 슬픈 일이며 이전 선비들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깊은 반성의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고향으로 돌아온 작자는 관직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이 차분히 회고하며 성찰을 통해 진솔한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송남수가 마지막 은거지로 삼았던 송담에서 즉석으로 쓴 「松潭口占」이다.

24) 宋栢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90.

西潭月欲沉	서쪽 못에 달이 빠지려 하니
山客眠初覺	산객은 잠을 자다 막 잠을 깨는구나.
拓戶坐三更	대문을 열고 한 밤중에 앉으니
深林哭射豹 ²⁵⁾	깊은 숲 화살 맞은 표범 우는구나.

송남수의 자호이기도 한 松潭은 옛 지명이 공주 沙寒里 下沙이다. 현재는 대전시 동구 이사동을 말한다. 이곳에 송남수는 79세(1615)의 나이에 披雲菴을 짓고 그 앞에 못을 파서 '송담'이라 이름 붙였고 즉석에서 위의 작품을 지었다. 이 시에서 山客은 작자 자신이다. 작자가 막 잠에서 깨는 순간에 서담에 달이 빠지려는 찰나이다. 잠에 깬 작자는 대문을 열고 비로소 한밤 중임을 알고 표범의 애처로운 소리를 통해 송담이 깊은 산 속에 있음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 깊은 산중에 있는 송담에 은거하는 작자의 즉흥적인 감회를 쓴 시이다.

다음은 자신의 일대기를 시로 기록한 「松潭雜詠」이다.

雅性愛林泉	본래의 성품이 임천을 사랑하니
萬鍾非所欲	많은 봉록도 원하는바 아니었다.
行身多齟齬	처신이 어긋나는 일이 많아서
一宦終三黜	잠시의 관직에서 세 번을 내쫓겼다네.
龜藏水石鄉	수석 좋은 시골에 숨어 있으니
琴書自娛悅	거문고와 글을 스스로 즐겼구나.
湖邊數頃田	호수 가에 몇 이랑 밭이 있고
潭上三椽屋	연못 가에 두서너 간의 집을 지으니
溪翁進琴高	계웅은 거문고의 높은 곡조 뽑내고
林僧薦香蕨	숲 속 승려는 향기로운 고사리 전하네.
一枝棲息穩	가지 하나 얻어 편안하게 깃들여 살며
簞瓢有餘樂	일단사 일표음에 넉넉한 즐거움이 있네.
有時發清興	때때로 맑은 흥이 일어나면
步出溪邊石	시냇가의 돌을 걸어도 본다네.

25) 宋栢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90.

杜宇啼白晝	두견새는 대낮에도 슬피 울고
山杏花初落	산 살구의 꽃들이 처음 떨어지네.
回頭爭奪地	머리 돌려 보니 쟁탈하는 곳에
紛紛榮與辱	분분한 영욕이 있네.
閑忙不同調	한가함과 바쁨이 보조가 같이 않고
何處較得失	어느 곳에서 득과 실을 비교할까?
沙村舊時人	사촌에 사는 옛 사람들
往來來爭席	이따금 찾아와 앉을 자리를 다투는구나.
壯者已云沒	씩씩한 사람은 벌써 죽고
襤褸頭盡白	포대기속 아이가 백발이 되었구나.
庭前手植松	앞 뜰에다가 손수 심은 소나무가
于今已千尺	지금까지 벌써 천척이나 되었구나.
流光疾於羽	흐르는 세월이 새보다 빠르니
行年八十六	내 나이 이미 86세라네.
百感集胸中	백감이 가슴 속으로 모여드니
恍惚淚盈掬 ²⁶⁾	황홀하여 눈물이 한 움큼 되는구나.

송남수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일대기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송남수는 본래 입신양명을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40세가 되도록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출사했지만 세 번이나 한직에 좌천당하는 현달치 못한 관료 생활을 했고, 관료 생활을 마치고 임천을 좋아했던 자신의 성품을 따라 자연 좋은 곳으로 은거하며 거문고와 글을 즐기며 소소한 일상을 영위한다. 그는 송담의 작은 연못에 의지하여 식량할 수 있는 작은 텃밭과 작은 집을 짓고 거문고의 악기 솜씨를 뽐내자 산 속 승려가 그 소리를 듣고 손수 뜯은 고사리를 내 온다. 그는 안자의 청빈한 삶인 一簞食와 一瓢飲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좋은 흥취가 일어날 때마다 송담의 시냇가를 거닐곤 한다. 관료 생활을 생각해 보니 영욕과 쟁탈만 있을 뿐, 득실을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은거를 위해 마련한 송담에 와보니 고향을 떠나기 전 보았던

26) 宋栲壽, 『松潭集』, 卷2, (한국문집총간 속4), p491.

씩씩했던 지인들은 이미 죽어 만날 수 없고 포대기 속 아이였던 작자는 이미 백발의 90세의 나이를 바라보는 고령의 노인이 되었다. 86세의 송남수는 지난 일을 회고하며 온갖 감회가 떠오르며 한손 가득 황홀한 눈물을 쏟는다. 이 모습은 자신의 일대기를 오언고시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술한 회고시라 할 수 있다.

VI. 결 론

본고에서 살펴본 송남수는 관료생활에서 현달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300여 수의 한시는 김창협이 眞詩라고 평가할 정도로 시적 성과가 뚜렷하다. 『송담집』의 서문과 발문을 쓴 송시열과 김창협 등이 지적한 송남수의 시적 경향은 아름다운 산수 기행을 통한 감흥과 관직 생활 이후의 한거와 시주의 흥취, 회덕으로의 은거를 통한 회고와 감회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을 통해 본고도 송남수의 한시를 분석해 보았다.

40세 늦은 나이에 관료 생활을 시작한 송남수는 40세의 계룡산 유람, 57세 관동유람을 했고 관료생활을 마치고 78세에 계룡산, 79세 영동 유람, 80세 금강 유람, 81세 형강 유람, 86세 갑천 유람을 하였다. 그의 유람은 대체적으로 늦은 시기에 이루어 졌다. 그가 고향인 회덕인근을 제외하고 원거리 유람은 주로 관직 생활 때 경험했던 것들이다. 임지에 따라 그곳에서 유람을 했고 이후 관직 생활을 마치고는 회덕 인근의 영동, 청주, 갑천 등지의 금강을 즐기러 유람하는데 그쳤다.

송남수는 60세에 관료 생활을 마치고 미련 없이 회덕 고향에 내려와 90세의 나이로 졸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그는 琴書와 詩酒를 즐기며 관료생활 때 못했던 흥취를 마음껏 즐긴다. 흥취의 무대는 회덕 주변이고 그곳에서 금서와 시주는 그동안 바쁜 일상에서 누리지 못한 즐거움의 종류였던 것이다.

송남수는 졸수의 나이인 90세까지 생존한 인물이다. 그는 늦게 관료 생활을 했지만 반면 늦은 나이에 관료 생활을 마쳤고 이후 30년 가까이 은퇴 생활을 했다. 그가 40세에 벼슬을 위해 떠난 시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합하면 70년으로 이 시기를 회덕에서 생활했던 것이다. 그는 은퇴 이후 시주의 감흥을 잠시 즐기기도 했지만 마지막 인생을 송담의 작은 연못으로 옮겨 온거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를 통해 여러 감회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비록 중앙 정계의 현달한 관료,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시인의 명성을 떨친 인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충청도 회덕의 서인 본거지에서 송희갑, 송몽인과 함께 회덕 3대 시인으로 지칭되기에 충분한 성과는 보여 주고 있다. 아직 송희갑을 비롯한 송몽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회덕의 3대 시인의 시적 특징은 예단할 수 없지만, 송남수의 시에 한정해서 본다면 김창협이 말한 참된 시, 진솔한 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國譯 松潭集』, 恩津宋氏松潭公派宗中, 郷志文化社, 1997.

『國朝人物考』.

權輶, 『石洲集』, 한국문집총간 75집.

金尙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77집.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162집.

宋國澤, 『四友堂集』, 한국문집총간 속27집.

宋栢壽, 『松潭集』, 한국문집총간 속4집.

宋夢寅, 『琴巖集』, 한국문집총간 속20집.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집.

尹根壽, 『月汀集』, 한국문집총간 47집.

2. 논저

김선기, 「송담 송남수(松潭 宋栢壽)와 대전의 경관시(景觀詩)」, 『대전문화』 제13호, 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4.

송현강, 「송담 송남수와 대전 향촌사회」, 『대전문화』 제22호, 大田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13.

정경훈, 「사우당 송국택의 시문학과 문학세계」, 『사우당 송국택의 선비적 삶과 우국정신』, 대전광역시, 2018.

최근묵, 「17세기 大田地方의 士林 基盤」, 『道山學報』 4, 도산학술연구원, 1995.

Abstract

A Study on Poet Song, Nam-soo in Hoedeok

Jung, Kyung-hun^{*}

Song Nam-soo is a representative poet in the Hoedok area. He is the third poet in Hoedeok, along with Song Hee-gap and Song Mong-in. In addition, Yoon Geun-soo, Lee Jeong-gu, Kwon Pil, Kim Sang-yong, Yoo Geun, Jeongon, Jeong-gu, Lee Ho-min, Ian Noul, Shin Heum, etc., cultivated with the best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and left over 300 poems. Song Nam-soo's poetry was included in the famous poem 『KIA』 and was widely known in the world. Song Si-yeol and Kim Chang-hyup revealed the poetic features of Song Nam-soo. In particular, Kim Chang-hyup referred to the poetry of Song Nam-soo as 'A true poem(眞詩)'.
www.kci.go.kr

Song Nam-soo's specialty is to write down beautiful landscapes. And after living in office, living leisurely and getting pleasure through poetry and alcohol. And remembering the past while staying in Hoedeok. Song Nam-soo toured Gyeryongsan, Kwandong, Yeongdong, Geumgang, Hyeonggang and Gapcheon and left them as poems. And after finishing his bureaucratic life at the age of 60, he came to Hoedok without regret and enjoyed lyre, books, poetry, and alcohol until he died at the age of 90. After retirement, he enjoyed poetry and alcohol, and transferred his last life to a small pond in Songdam. I looked back on my life here and expressed various feelings in a poem.

【Key words】 Song, Nam-soo, Hoedeok, A true poem(眞詩), Natural travel poem, A leisurely life, Poetry and alcohol, Retrospect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22일

^{*} Visiting professor, Sino-Korean literature, Wonkwang University. / juilam@hanmail.net

